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 창조

발행일 2011년 8월 8일 (월)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2. 대구지부/ 전시관 사역 | 2쪽 |
| 3. 대구지부 기본과정 안내 | 3쪽 |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48) 상상지 - 이재만                           | 4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27)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다 - 이종현 | 6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3)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 - 김무현            | 9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31)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11쪽 |

## 인사말



장마 끝자락 햇살은 눈부시기만 하고 행여 늦은가 하여 열심히 울어대는 매미소리는 한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전주곡인가 봅니다. 그러곤 또 언젠가 귀뚜라미 소리가 이를 대신 하겠지요. 시간을 지배하는 천체의 움직임은 오늘도 여상하기만 한데, 애써 이를 외면하는 인간의 바벨탑은 날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이 우주를 보시며 자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여름 내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시길 마음 깊숙이 소망해 봅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김 명 철 올림 -

## 1. 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9월 1일(목)부터 창조과학 기본과정(매주 목요일-5주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본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9월 1일에 시작되는 기본과정 중 개강예배 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 이종현 교수(경일대학교)

일시: 2011년 9월 1일(목) 7:20pm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제목: "교회와 창조과학"

문의: ☎ 070-4095-6420



대구전시관 오시는 길

070-4095-6420  
대구전시관(수도빌딩 2층)

남부경찰서

123노인요양  
복지센터

1호선 영대병원역  
1번출구

현충로역

명덕시장 네거리

영대병원 네거리

대구 남구 대명5동 207-1번지  
수도빌딩 2층 (705-802)

## 2.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 전시관 사역

7월 24일(주일)엔 부림교회에서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화석이 들려주는 이야기**” (실험카페 4차시)에 대해서 김종성 선생님께서 강연하시고 최송화 선생님의 지도 아래 직접 실물화석발굴키트를 통해 암모나이트 · 상어 이빨 · 굴 화석 등을 발굴하는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 30(토)일엔 하양청천교회와 경산은혜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실험카페 1-3차시로 창세기에 대해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경청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이 땅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다시금 올려드리며 축복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 16일(토)과 18일(월)엔 서문교회 및 서현교회 고등부 수련회에서, 그리고 18일(월)엔 경산중앙교회 갈릴리 청년부(권진혁 선생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를 대상으로, 28일(목)엔 경주서부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묘훈 선생님이 섬겨주셨습니다.^^\*)을 대상으로 한 창조과학특강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



### 3.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기본과정 안내



- **일정:** 2011. 9. 1-29일 (목)  
19:20 - 21:30

- **장소:**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 **특전:** 심화 과정, 강사과정  
수강 자격 부여

- **수강료:** 5만원 (8월 24일 전  
등록 시, 그 이후 6만원)

- **문의:** ☎ 070-4095-6420

<http://creation21.or.kr> (우체국: 703520-01-002334, 창조과학회)

※ 목적: 그물별 성경공부 등에서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도구인 창조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

※ 수료: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단 4주 이상 참석하고 수강 소감문 혹은 창조과학 관련 자료 감상문을 제출하신 분)

※ 강의일정 및 프로그램 (시간: 19:20~20:20, 20:30~21:30)



일자(목)	강좌	강사
1주 9월 1일	개강예배 오리엔테이션	최승호 장로 (경북교 수학교사) 성영관 지부장 (경북대 의대 번역학 교실)
	교회와 창조과학 (전화된 교육의 악영향)	이종헌 교수 (경일대학교 토목공학, 아펜교회 장로)
2주 9월 8일	생명계 - 그 완벽한 디자인	신동수 전시관장 (계명대 화학공학 명예교수, 계명대학교회 장로)
	창세기 5장의 계보에 숨겨진 놀라운 복음	김영철 교수 (계명대 건축학, 제일교회 장로)
3주 9월 15일	사람 - 하나님의 숨겨진 걸작품	임진규 교수 (경북대학교 동물자원학, 동부교회 출석)
	한자와 창세기	박종환 박사 (경북대 중등연수원, 동성교회 장로)
4주 9월 22일	공통과 사람은 함께 살았을까	길소희 간사 (MI 국제교회 출석)
	좁은 지구와 우주	김경찬 교수 (계명대 화학과, 동로교회 장로)
5주 9월 29일	창세기 대홍수의 과학적 증거	권진혁 교수 (영남대 물리학과, 경산중앙교회 집사)
	종강예배 및 기본과정 수료식	신동수 전시관장



## 선상지 (Alluvial Fans)

“점점 물리가서” (창 8:2b)

지난 호에서 산과 계곡이 꼭대기로 갈수록 점점 가파른 지수함수의 모양은 노아홍수 때 엄청난 양의 물이 빠져나가면서 남겨놓은 흔적이라는 것을 다루었다. 산과 강이 만들어지는 지형발달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지형 전체가 시간에 따라 점차 진화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현재 지형은 지형이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과 다른 지형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 이론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양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현재 지형의 틀에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즉 언젠가 어떤 모습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모습의 지형을 결정할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1: 중국 신장성 타클라마칸 사막의 선상지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Alluvial\\_fan](http://en.wikipedia.org/wiki/Alluvial_fan)>

이러한 생각은 단지 침식의 개념에서 만이 아니다. 과거를 해석하려는 지질학의 거의 모든 이론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절벽이 만들어졌을까?” 라는 질문을 놓고도 현재 침식되는 속도로 보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는 것과 이러한 절벽을 형성시킬만한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사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는 해석의 대립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전자의 해석은 과학적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상에 의한 것이었다는데 있다. 반면에 후자의 지형에 관한 사건 중심의 해석은 훨씬 최근에 발표된 것들이며, 대부분이 실험에 근거한 것들이라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형의 모양을 연구하는 지형학에 있어서도 실험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골짜기의 가파른 곳과 완만한 곳이 만나는 곳에서는 전상지(alluvial fan)가 형성된다(사진 1). 위버(Weaver, 1984)는 전상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실험을 통하여 보여주었는데, 결론만 언급하면 어떠한 전상지(Fan)가 형성되는 것은 시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상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사건(episode)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사진 2). 사진의 실험은 독을 만들고 뒤에 물과 흙을 섞어놓은 다음 독을 열었을 때 흙들이 펼쳐지면서 순식간에 만들어진 전상지의 모습이다. 이는 실제 전상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실험의 결과도 말하듯이 전상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2: 전상지 형성 실험>

실제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전상지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지구상에 전상지를 보여주지 않는 지역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상지의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 위 사진에 나와 있는 중국 신장성(XinJiang Province)의 타클리마칸 사막(Taklimakan Desert) 남쪽 경계를 이루는 쿤룬과 알툰 산맥(Kunlun and Altun mountain ranges) 사이의 황량한 땅에 펼쳐져 있는 전상지도 약 3,500 km<sup>2</sup> (1,400 sq mi)의 면적을 덮고 있고, 네팔의 코쉬 강(Koshi River)의 거대전상지(megafan)도 약 150,000 km<sup>2</sup> (58,000 sq mi)를 덮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이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전상지 위에 세워졌으며 캘리포니아의 LA나 페루의 수도 리마(Lima)도 대규모의 전상지 위에 세워진 도시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지형은 대부분 지구 전체에 창일했던 물이 노아홍수 말기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것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으며(성경 상으로 150일 이내), 그러한 대규모의 침식과 운반과 퇴적 과정을 배제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다

## (MOSES Kills an Egyptian And Flees to Midian - Exodus 2:11-25)

모세 요셉의 시대로부터 거의 400년이 지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을 모르는 한 파라오가 등장했다.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했다. 모세는 이들 히브리 노예 가정의 하나에서 태어났다. 파라오의 군인들로부터 피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다. 파라오의 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그녀의 양자로 삼았다. 모세는 그녀의 아들로 자라났으며, 이집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부와 좋은 교육을 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히브리인 노예를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였다.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미디안에서 양치는 여자인 십보라를 만나 결혼했다. 그는 목동이 되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았다.

### 이집트의 창고 도시들

이집트의 파라오는 매년 백성들로부터 곡식, 동물 혹은 다른 생산물로 세금을 거두었다. 이들 세금은 왕과 그의 정부를 위해 사용하려고 거둬들였다. 추수를 많이 하는 해에는 수확이 적은 해와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둬들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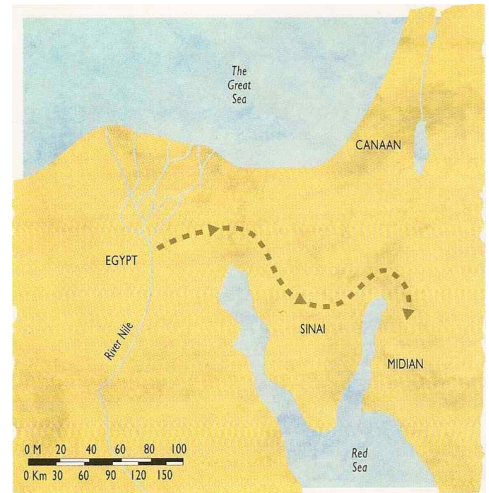
이 모든 식량들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으므로, 이런 목적을 위해 큰 도시를 건설했다. 여기에 인부들이 필요했으며, 히브리인들을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 피툼과 람세스 같은 커다란 창고 도시를 건설하게 했다. 이 두 도시는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했으며, 고센땅 내부였거나 혹은 근처에 있었다.

이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힘든 노역이었으므로, 이집트인들은 아무도 이 일을 원하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은 노예로서 힘들게 일했으며, 썩은 노동력을 제공했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파라오가 원하지 않았던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 미디안 땅

모세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자, 그는 이집트를 떠나 사막을 건너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남동쪽으로 약 320킬로미터(200마일) 떨어져 있으며, 홍해로부터 북동쪽으로 뻗는 지류인 아카바 만의 북동쪽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는 크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했다. 그들에게는 미디안으로 이름을 지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 <이집트로부터 미디안에 이르는 모세의 여정>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갔다. 거기서 그는 이드로의 딸 중의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했다(출 2:15-22). 그러나 이드로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인과 이스라엘인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 이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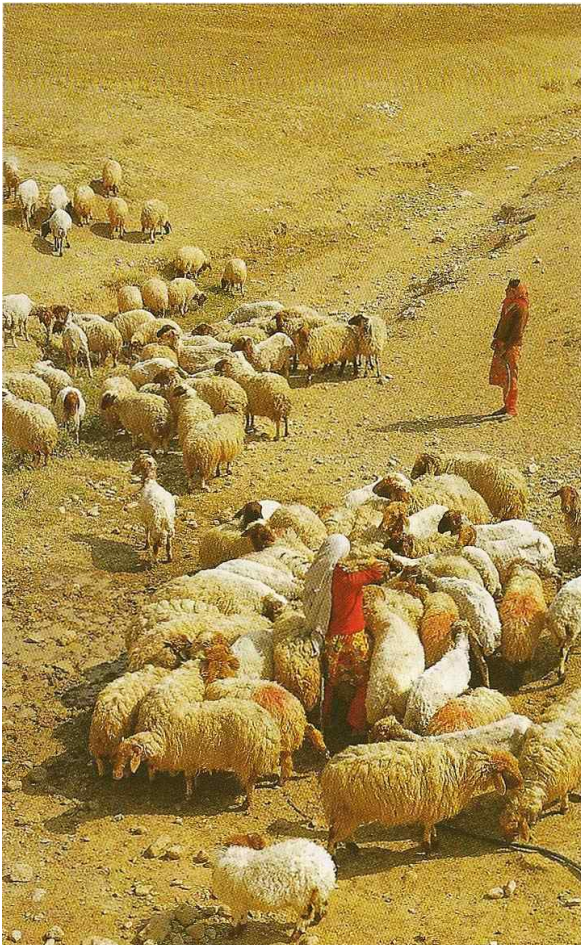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으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으로서는 그의 임무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미디안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와 재판관으로서 다른 종족들을 섬겼을 것이다. 이드로는 르우엘이라고도 불렸다(출 2:18). 이 이름은 미디안 종족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일 것이다.

모세가 자기 딸들을 악한 목동들의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이드로가 알게 되자, 그는 모세를 초청해서 자기와 함께 머무르며 살도록 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다. 그들은 미디안 땅에서 그 후 40년을 살았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온 이후, 이드로는 광야에서 그를 방문하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재판 체계를 세우는 것을 도왔다(출 18:14-27).

## 모세가 목동들과 함께 정착하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양육되었다. 여기서 그는 그 땅의 기술과 관습 안에서 완전히 훈련받았다.

비록 모세가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는 이집트인으로 양육 받았으며, 히브리인들은 야만적이고 뒤진 민족이며, 양치는 일은 품위를 깎아내리는 직업이라고 배워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왕자인 모세의 경우, 미디안 땅에 정착하여 양을 돌보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초라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그는, 그동안 경멸하라고 배워왔던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그의 고향인 이집트의 밖으로 인도했다.



<십보라는 위의 사진 속의 소녀들처럼 양치는 소녀였다. 그녀의 거친 생활습관은 이집트의 고상한 여인들과는 많이 달랐다.>

## 십보라

십보라는 이드로의 일곱 딸 중의 하나이다.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했을 때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출 2:21). 그녀는 게르숨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두었다(출 2:22; 18:3-4). 그녀는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려고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같이 따라왔다. 그 도중에 그녀는 자기의 아들 게르숨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다(출 4:24-26). 나중에 그녀는 미디안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광야에서 모세와 합류하였다.

## 모세의 40년 주기

모세의 인생은 세 번의 40년 주기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의 출생으로부터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때까지이다(행 7:23-29). 그 시기동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며, 언어와 예술, 군사 및 다른 기술들을 고도로 훈련받았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그가 미디안에 도착하는 때부터 시작한다. 그 시기 동안에 그는 미디안에 살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았으며, 십보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미디안에서의 40년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의 민족을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놓아준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창조**



##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할 것인가

### I. 서언

3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 계시이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무오하다는 계시(revelation)/영감(inspiration)/무오성(inerrancy)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원본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적 무오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 성경의 문자자체가 우상이 될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과에서는 계속되는 성경의 예언/언약들과 그의 성취를 보면서 이에 대한 더욱 확고한 믿음에 이를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성령님의 조명으로(illuminated by the Holy Spirit)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영적인 깨달음과 성숙함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신학뿐만이 아니라 일부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성경의 전체가 아니라 오직 구속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며, 모세 오경을 근동지방의 신화와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16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성경(그 당시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의 일부만이 영감 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부분은 영감 된 것이고 어느 부분은 아닌 것인지, 끝없는 논쟁이 계속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영국이나 독일의 교회와 같이 인본주의적 신학만 무성하게 남고 참 신앙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파는 성경 중에 복음서가 더 권위 있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등은 덜 중요한 책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성경의 어느 책은 더 중요하고, 어느 책은 덜 중요하다면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 디모데후서 3:16, 새번역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adequa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 2 Timothy 3:16-17, NASB*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통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모세 오경을 포함하여 성경전체가 하나님의 참 계시이며, 성령님에 의해 기록된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8)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요한복음 10:3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45-46)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27)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44-45)

예수님께서서는 그 당시의 모든 성경, 즉, 구약의 어느 하나라도 폐하지 못하고 다 이루리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는데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무의미하고 감동이 없을 것 같은 내용들 같지만, 그 중에 꺼내고 꺼내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진리와 깨달음과 감동의 샘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의 다윗과 같은 고백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103)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Yes,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 Psalms 119:103, NASB)*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참조**

##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어떤 이들은 성경을 과학책이나 역사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교과서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사람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성경은 그것이 말하는 것의 모든 구체적인 면에서 옳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람이 물의 순환-구름의 형성을 야기하는 대양의 증발, 강물로 흘러들어가는 구름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다시 대양으로 돌아가는 물-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아모스 9:6)”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전도서 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기 중의 제트기류와 움직임이 아직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전도서 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역학 제1·2법칙과 원자의 구조, 해양학, 공룡, 의학, 그리고 천문학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읊기서 한 권에서만도 20가지가 넘는 과학적 개념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파스퇴르, 뉴턴, 보일과 같이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성경을 믿는 창조론자들이었습니다. 매튜 모리(Matthew Maury)는 현대해양학에 관한 최초의 교과서를 썼는데, 그의 연구는 시편 8:8,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를 읽은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다가 해안가로 쓸려온 표류병(drift bottles)으로부터 이끌어낸 정보로, 바다의 ‘길’인 해양해류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존재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끝날 때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요한계시록 22:13).”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  
Revelation 22:13, NASB*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천지만물의 실재 역사와 생명체에 대한 지시사항을 더 잘 적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디모데후서 4:3-4, 골로새서 2:8). 이것이 그랜드캐니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인간의 이론이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부인하는 경향을 지니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이론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어져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책을 결코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들도 사실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캐니언 남쪽 가장자리, 야바파이 지점

<출처: <http://jfbethanis.com/?tag=grand-canyon>>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요한복음 8:12, 개역개정

*Then Jesus again spoke to them, saying,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who follows Me will not walk in the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 John 8:12, NASB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mailto: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